

<서평>

렌토르프 구약 정경 신학

렌토르프

하경택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709쪽

장세훈*

정경적 해석은 전통적 역사 비평학의 한계를 인식하며 새로운 해석학적 방향을 제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해석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 중 롤프 렌토르프(Rolf Rendtorff)는 이와 같은 정경적 해석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독일 구약 신학자이다. 그는 저명한 독일 구약 신학자 폰 라트의 제자로서 전통적인 역사 비평의 오경 문서설에 도전했으며, 독일 구약 학자들이 흔히 간과했던 본문의 최종 형태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비록 그는 역사 비평학적 이론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성경 해석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필요성을 인식한 뒤 정경적 해석을 주요 해석학적 원리로 수용한다. 가령 그는 구약 역사 비평학의 대원리로 작용했던 벨하우젠의 문서설과 그 역사적 재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J나 P 문서들이 정확한 언어학적 근거를 상실한다고 진단한 뒤 J와 P 문서의 가설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역사 비평학에 도전한다.¹⁾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Rolf Rendtorff,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up 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을 보라.

더욱이 그는 토라를 선지서 이후에 위치시킨 벨하우젠의 역사적 재구성(은 본질적으로 반 유대교적 사상이 숨겨져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²⁾ 또한 그는 자료 비평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양식 비평조차도 삶의 정황에 따른 본문의 단락들을 너무 분리시켜 결국 본문의 파편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양식 비평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식 비평은 개별 본문 단락들을 그 배경에 따라 너무 세분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양식 비평의 창시자 헤르만 궁켈은 “최소의 문학 단위”(smallest literary units)에 대해 말했으며, 이런 최소단위는 구체적이고도 분석되고 규정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본문의 복잡성(the larger textual complexes)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³⁾

이와 같이 전통적인 역사 비평의 문제점을 인식한 렌토르프는 본문 자료들의 더 넓은 문학적 단위와 그 신학적 관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입장⁴⁾을 수용하여 정경적 해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993년에 영문으로 번역 출간된 그의 책 『정경과 신학』(Canon and Theology)에서 그는 자신의 정경적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다.

따라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요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즉 첫째는 구약 본문들 혹은 모음집들의 “정경적” 방식을 따르는 것이며, 둘째는 구약에 나오는 개별 신학적 논점과 그 외 다른 것을 포함한 개별 주제들 및 사상들을 고찰하는 것이다.⁵⁾

2) 구체적인 토론으로는 Rolf Rendtorff, “Jews and Christians: Seeing the Prophets Differently,” *Bible Review*, XIX (2003), 24-31을 보라.

3) Rolf Rendtorff, *The Covenant Formula: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Edinburgh: T & T Clark, 1995), 9.

4)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79).

렌토르프는 전통적인 역사 비평적 방식이 정경으로 주어진 본문의 맥락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 “해석의 주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어진 히브리 성경 본문이 되어야 한다”⁶⁾고 강조한다. 이것은 최종 정경 형태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차일즈의 입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렌토르프는 해석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먼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전체로서의 정경”(canon as a whole)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다.⁷⁾ 요약하자면 렌토르프의 신학은 그의 스승, 폰 라트의 전승사적 접근에 기초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차일즈의 정경적 접근을 수용하여 본문의 최종 형태를 해석학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최근에 출간된 그의 책 『구약 정경 신학』은 이와 같은 렌토르프의 해석학적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한다. 1999년 독일의 Nukirchener Verlag 출판사에서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in kanonischer Entwurf*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본서는 원래 2권으로 출간되어 2001년에 다시 재판된 책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출간된 그의 책 『구약 정경 신학』은 아쉽게도 1권이 제외된 2권의 한글 번역본이다.⁸⁾ 1권에서 구약의 개별 책들을 다루면서 그 신학적 관점에 집중했던 렌토르프는 2권에서는 구약의 주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렌토르프가 2권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아래와 같다.

(1) 하나님의 창조 세계, (2) 언약과 선택, (3) 이스라엘의 조상들, (4) 약속되고 위임받은 땅, (5)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애굽, (6) 이스라엘 삶의 중심: 토라, (7)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장소: 제의, (8) 모세, (9) 다윗 왕국, (10) 시온, (11)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12) 반역하는 이스라엘, (13) 예언, (14) 이스라엘의 예배와 기도, (15) 이스라엘의

5) Rolf Rendtorff, *Canon and Theology*, OB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3.

6) Ibid., 27.

7) Ibid., 29.

8) 영문판은 1권과 2권을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의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The Canonical Hebrew Bible: A Theology of the Testament (Leiden: Deo, 2005).

지혜, (16) 이스라엘, 열방, 그리고 이방신, (17)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18)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본서에서 다루어지는 렌토르프의 주제적 접근은 최종 형태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렌토르프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타 본문들과 어떤 정경적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그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시편이나 이사야 40-55장에 선포된 창조의 주제들을 정경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창조의 주제뿐만 아니라 언약과 선택의 주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접근한다. 여기서 렌토르프는 언약의 개념을 “언약 형식구”라는 패턴을 통해 분석하면서 오경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들을 오경 외의 본문들에 등장하는 언약들과 비교한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다루는 (3)의 단락에서 렌토르프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역사속에서 의미하는 것을 언약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나아가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땅의 문제가 (4)의 단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4)의 단락에서 취급된 땅의 이슈는 (5)의 단락에서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목적과 연결된다. 여기서 렌토르프는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종살이의 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127쪽)고 강조해 출애굽의 신학적 의미를 부각시킨다. 또한 첫 번째 출애굽은 두 번째 출애굽의 재현이 된다. 특히 렌토르프는 첫째 출애굽이 둘째 출애굽의 모형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133쪽). 렌토르프는 출애굽의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 관심을 돌린다. 특히 (6)과 (7)의 단락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는 토라와 제의를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특히 그는 토라의 중심으로 십계명을 최종 정경의 현 맥락 안에서 면밀하게 분석한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위치한 제의의 중요성이 이스라엘의 선택과 거룩성과 결부된다고 강조한다. (8)의 단락은 모세라는 인물을 부각시

킨다. 여기서 렌토르프는 모세를 부름 받은 구원자, 토라의 수령자, 언약 중재자, 범례적인 예언자, 고난당하는 증보자,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한다. 렌토르프는 이 단락에서 모세를 취급할 때, 역사 비평적 읽기에 따라 역사적 재구성에 의한 8세기나 6-7세기 예언자들의 우선성보다는 정경적 읽기에 따라 예언자적 선구자로서의 모세의 위치와 그 정경적 우선성을 강조한다. (9)의 단락은 단락은 다윗 왕국의 시작과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취급하며,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상을 부각시키며, (10)의 단락은 다윗의 통치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가리키는 시온의 이미지를 소개한다. (11)의 단락은 히브리 성서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에 초점을 둔다. 흥미롭게도 렌토르프는 (12)의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주제에 집중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의 중심 메시지인 “회개”의 주제를 부각시킨다. 렌토르프는 (13)의 단락에서 예언의 단계를 “여호와와의 말씀”, “예언자들의 그 말씀 전달”, “예언자들의 말의 수집과 해석”의 나누어 분석한다. (14)의 단락은 시편의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무엇보다도 시편과 오경과의 정경적 연결성을 강조한다(449쪽). (15)의 단락은 지혜 문학을 다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나 시편과는 다른 지혜 문학의 독특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16)의 단락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 특히 이스라엘과 열방의 신들의 관계와 하나님과 열방과의 관계를 진술한다. (17)의 단락은 이스라엘의 자기 역사 기술을 다루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24:2-13, 다양한 시편들, 느헤미야 9:6-37과 같은 본문들을 그 예로 소개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대한다. 마지막으로 (18)의 단락은 이스라엘의 미래, 특히 왕정, 정의와 평화, 회개와 하나님의 돌이킴, 갱신된 언약, 야훼의 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종말론적 주제들을 취급한다. 이런 주제들은 히브리 성서가 지향하는 미래의 기대를 함의한다. 이와 같은 렌토르프의 구약 정경 신학의 주제 연구는 창조에서 시작해 미래의 종말론적 기대로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약술한 것처럼 렌토르프는 본서에서 역사 비평의 통시적 해석의 결과들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종 정경 형태의 신학적 연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렌토르프의 주제적 접근은 통시적 접근보다는 공시적 접근에 더욱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1권의 서두에서 “구약은 하나의 신학적 책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은 렌토르프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단락에서 “정경적 최종 본문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은 렌토르프의 정경적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역사 비평학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론만으로는 본문 해석이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역사 비평학의 역사적 재구성은 현재의 최종 정경 형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해석학적 전환을 주장하면서 역사 비평학이 도외시했던 본문의 최종 형태를 해석자의 일차적 관심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면 역사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창조 주제는 역사 비평학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의 주제는 종교사적인 관점에 따라 통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결과 최종 정경 형태에 나타난 창조 신학의 연속성 혹은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렌토르프는 최종 정경 본문 자체의 맥락을 보지 못하는 역사 비평학의 한계를 넘어서 최종 정경 형태의 전체 구상과 그 의도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경적 접근은 인지 형식구의 정경적 해석을 통해 더욱 뒷받침된다.

끝으로 렌토르프는 구약의 명칭에 따른 신학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구약의 권위와 그 가치의 다양성을 면밀히 분석한다. 여기서 렌토르프는 구약의 해석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차일즈의 입장과는 거리를 둔다. 또한 그는 70인 경의 순서를 따르는 기독교 정경의 입장보다 유대인들이 취하

는 “타나”의 세 등분 순서를 더욱 선호한다. 그럼에도 렌토르프는 이런 첨예한 신학적 이슈들에 대해 어떤 확고한 해석학적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방적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독자들을 향해 계속적인 대화와 열린 마음으로서의 해석학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본서를 마무리한다.

본서가 21세기 구약 해석학계에 미친 가치와 공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먼저 본서는 전통적인 역사 비평학의 통시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 서서 구약 전체의 정경적 맥락을 해석학의 출발점으로 강조해 21세기 독자들을 향해 본문 전체의 정경적 구상과 그 의도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시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역사 비평학의 문체와 한계를 인식한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해석학적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나아가 본서는 개별 책들의 신학들이 어떻게 정경적으로 연관성을 갖는지를 규명해 우리에게 개별 책들을 독자적으로 읽기보다는 상호 본문적(intertextual)으로 읽도록 촉구한다. 이와 같은 렌토르프의 접근은 구약 전체의 신학적 구상과 의도를 무시한 채, 개별 책들의 신학적 다양성에만 치중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정경적 통일성에 근거한 구약 읽기의 해석학적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뿐만 아니라 본서는 난해한 전문적인 신학 토론이나 논증 방식보다는 다소 이해하기 쉬운 신학적인 기술 방식을 선택해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선 목회자들의 구약 연구에도 매우 유익한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또한 그의 해석 방법론은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렌토르프의 작품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렌토르프의 주제적 접근은 주제 선택에 주관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선택한 주제들이 구약 신학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주제 선택은 다소 선택적인 뉘앙스를 남긴다. 예를 들면 구약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거룩”과 같은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비록 하나님의 속성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하고 있지만 “거룩”의 주제가 구약 전체에 어떻게 정경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다른 구약 신학 작품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죄”, “속죄” 혹은 “제사”의 이슈들 역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주제 선택이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아쉽다. 또한 렌토르프는 주요 주제들을 다룰 때 때때로 내용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가령 창조나 토라의 주제는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나 예배나 지혜의 주제는 매우 소극적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차이는 독자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의심하게 만든다.

본서의 전개 구성 역시 아쉽다. 본서는 전반부에 구약의 주제들을 다루고 후반부에 구약 해석 방법론을 취급한다. 그렇지만 이런 순서는 오히려 반대로 전개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 전반부에 저자의 구약 해석 방법론을 소개하고 후반부에 저자의 주제적 접근을 제시하는 순서 방식이 독자들의 읽기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서를 한국어로 출간한 출판사의 기획도 약간 아쉽다. 한국어로 출간된 렌토르프의 『구약 정경 신학』은 두 권으로 출간된 원본의 1권이 아닌, 2권을 번역한 것이다. 원래 저자는 1권과 2권을 연속 기획으로 저술했다. 그러므로 저자의 의도에 따라 1권을 읽고 난 뒤, 연속해서 2권을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독서 전략이다. 그러나 1권보다 2권이 먼저 번역 출간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출판사에서 1권을 먼저 번역 출간하든지 아니면 1권과 2권이 함께 번역 출간되도록 전략적으로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렌토르프의 정경적 해석은 매우 중대한 해석학적 질문을 유발시킨다. 그는 해석학의 출발점으로 최종 본문 형태의 정경적 의도를 강조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최종 정경 형태는 어떤 순서의 본문을 가리키는 것인가? 가령 구약은 70인 경의 순서와 맛소라의 순서로 크게 구분된다. 비록 렌토르프는 구약의 70인 경 순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맛소라의 “타낙” 순서를 최종 정경 형태로 선호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렌토르프의 정경적 해석은 맛소라의 전통을 존중하여 “타낙”의 정경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구약의 “타낙” 순서보다는 70인 경 순서를 최종 정경 형태로 취한다. 그렇다면 최종 정경 형태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순서를 최종 정경 형태로 취해야 하는가? 또한 최종 형태의 순서 차이는 정경적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자의 후속 작품에서 이러한 해석학적 문제들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끝으로 영어 번역본이 아닌 독일어 원본을 한국어로 훌륭하게 번역해 낸 하경택 박사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이런 귀한 대작을 출간한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 감사를 드린다. 번역자의 산고의 노력과 출판사의 땀방울로 탄생한 렌토르프의 『구약 정경 신학』은 정경적 구약 해석의 진수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책으로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구약 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임에 틀림 없다.

* 접수일 2009년 8월 17일, 수정일 2009년 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9일